

당신의 성소를 살아가십시오: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십시오

by Kathleen Molaro, OFS
National Franciscan Youth and Young Adult Commission Chair

청년들과 청장년들만의 그 세대의 고유한 특성과 그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에게

친교와 친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마음을 갖은 공동체
의미 있는 일, 봉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때 도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신앙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방법
활기차고 진정한 교회 가족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뿐 아니라 가끔은 지지와 도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 자신을 마음 편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흠... 사실 나이 든 우리도 그런 같은 것들을 원하지 않나요? 나이 들어 가는 우리도 역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기에, 친구들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필요하고, 강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누군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니 이 두 세대 모두 필요한 것이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한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대부분은 행복하게도 에너지가 많고 신체도 건강합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며, 기꺼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려는 열정도 강합니다. 반면 우리는 이따금 노령과 노환의 이유로 활동하기를 꺼립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젊은이들은 세계적으로 세상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이 지금의 세상에서는 많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기술이 항상 친목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형성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만나며 서로를 알아가던 예전의 방식들을 디지털 (컴퓨터) 시대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최근 지구 형제회 방문을 하신 Giles Gilbert, OFM Conventual 신부님께서 맥시밀리안 골베 신부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집과 병원에만 계셔야 하는 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형제회를 위해 그들의 고통을 진실히 봉헌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선의로 다른 이들을 위해 봉헌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그리고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솔직한 자신이 되십시오.

우리 자신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실망과 어려움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와 외로움에 마음이 억눌리고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평생의 직업 전선에서 물러나고 이제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히 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흔쾌히 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결함이 있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고, 각자의 어려움을 나눔으로서 그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는 기술과 연민을 키우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주의: 그러나 질환에 관한 계속적인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도록” 애써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상호의존 또는 필수적인 상호관계의 개념이 젊은이들에게는 낯 설을 수 있습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쌓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렇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역시 도움을 받는 단체나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를 받기 원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중요하듯이 그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듣고, 듣고 또 들으십시오!

Scott Slattum, OFM 수사님께서 애리조나 주에 있는 피닉스에서 오랫동안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YOUFRA 의 20 여명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수사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바로 젊은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과 비난, 그리고 쓸데 없는 충고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 아픔, 기쁨 그리고 그들의 고분고투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Scott 수사님을 도와주시고 계신 한 나이드신 훌륭한 신사분이 있으셨는데, 그분께서는 젊은이들 모임 때마다 가서서 뒷좌석에서 그냥 계시곤 했었는데, 결국엔 그 젊은이들과 신뢰를 쌓게 되었고, 그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분께 전화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분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재능일지도 모릅니다만, 그의 나이에 불구하고 (또는 나이 때문에) 소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를 살으십시오.

우리는 기쁜 마음과 흔쾌한 마음으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을 본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성소를 사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줄 수 있는 무엇이든 주십시오. 우리의 형제회가 나이 들어 가지만, 얼마나 늙었는지 상관없이 매일 영적인 기쁨 안에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세대들이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성소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우리 각자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대와 관계없이 서로 이것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